

##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만... 🍷

Q) 저의 모든 삶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부분(부모님,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춘천에서 수은 드림

A)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헌신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수은 자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엡 1:4-5)다고 합니다. 수은 자매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모두 다 당장에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거나 목사가 되거나 길거리를 헤매는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전을 잊어버리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헌신한다라고 하면, 꼭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가서 선교하거나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지하철을 누비는 전도자가 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꼭 그런 식으로만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 부모님을 부양하고 효도하는 일을 전혀 못하고 돈 버는 것도, 개인적인 꿈도 모두 다 포기해야 하고 평생을 고생만 하면서 재미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이 그렇게 재미없고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 것이라면 아마 기독교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에 자기의 삶을 걸고 나서겠습니까?

또 하나 이유를 더 들자면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 -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 -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한번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고 말하면 평생을 하나님의 밋줄에 꽂혀서 절대 풀려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억지로 끌려다니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맘대로 조종하시고 망쳐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요10:10)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은 자매의 삶을 위한 아름답고 환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수은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은 자매에게 자매의 삶을 내놓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수은 자매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호 6:3). 그리고 수은 자매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요15:5).

그러므로 수은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고민한다면 저는 먼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제가 일하는 선교단체의 슬로건은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분을 명확히 안다면 그는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룬다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변화시키시고 만드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수은 자매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가진 수은 자매를 축복하고 격려해드립니다.

글/박석건(예수전도단 대학생DTS 간사)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